

연 중 제 6 주 일

기도서 P. 349

제1독서 (베 위 13, 1-2. 44-46)

제2독서 (고린전 10, 31-11, 1)

복 음 (마 르 1, 40-45)

# 숲 정 이

발행	원주교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판 리 국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 감 론



## 주여! 들으소서

오 현 택 신부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주시어,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버림받은 나환자에 대한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크신 자비를 볼 수 있었으며,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는 바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귀여워해 주시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사랑만으로 이루어짐을 그 나환자에게서 배울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과 구원의 근원입니다.

“선생님은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다. 깨끗하게 되어라”(마르코 1:40~41)

주여, 당신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생명 자체이심을 우리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당신께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짐을 당신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깨끗하게 되어라” 이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도와 시하고 꺼려하는 그 나환자를 사람들과 함께 살고 일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환자를 불행에서 행복으로, 죽음과 고통에서, 삶과 기쁨으로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심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신자들이 당신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히 당신이 세우신 교회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실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총 주옵소서.

나환자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기 처지를 알았기에 오만을 버리고 겸손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전능하심을 알았고, 당신의 한 말씀이 자신의 딱한 모든 사정을 고칠 수 있음을 믿었기에 의치고 애원했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여기 모인 모든 신자들이 거만하지 않고 겸손되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당신의 말씀을 생활할 수 있도록 밝은 지혜를 허락하시고 입술로만 의치지 않고, 당신 말씀을 행동으로 전파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소서.

<김계 천주교회 주임신부>



## 화끈하게 싸우자

사람들은 돌 이상이 모이면 즐거워 한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싸운다. 부부간에도 싸우고, 직장에서도 싸운다. 어떤 테슬러가 울퉁퉁에 다녀 와서 머리를 째었다. 연고는 국위선양을 못한 죄로 삭발을 한 것이다. 하지만, 그 테슬러의 고백은, 몸과 몸을 부딪히는 싸움을 통해서 정이 통한다는 고백을 했다. (사실인지 아닌지 경험없이는 알 수가 없다.) 어쨌든 싸우는 것이 화끈한 것 만큼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시에 수만명을 죽이는 싸움을 찬양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옛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말씀에 의하면, 싸우고 가까워진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진리가 될 수 있다. 싸운다는 이야기는 서로를 개방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술수로 싸우는 모사꾼이나 독재자는 예외이다.)

「자니 기타」라는 영화의 즐거위는 나름대로의 인정과 체면, 의리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내용이다. 누가 누구를 미워하든지, 종말은 여자를 싸움에는 휘말리지 말자는 것이다. 그렇다. 싸움의 구경은 재미있지만,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전해 주신 교훈이다.

그렇지만 구경으로 끝나서는 안될 싸움이 있다. 불의가 정의를 대항해서 억지 싸움을 벌이는 것을 구경으로만 끝내서는 안된다. 침묵이 금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것은 죄악임에 틀림이 없다. 그때는 물과 불을 가려서 싸워야 한다.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는 싸워야 한다. 화끈하게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먼 훗날을 위한, 내일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싸움의 종류는 여럿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러면서도 또 주위의 모든 것들과 항상 싸워야 한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 숲 정 이 산책



진짜 수고하는 사람

# 오늘의 한국 현실과 그리스도 교회의 입장

## 농지세제 개정하라!!

—농지세제 개정에 대한 우리의 주장—

한국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는 지난 연말 「교회와 사회에 보내는 정평위 백서(2)」를 발표했다. 다음은 5개항으로 되어 있는 백서 내용의 요약이다.

1. 정치 분야 : 교회가 정치 분야에서 보게 되는 것은 정당이나 정권의 정강정책보다 인간의 자유와 해방, 즉 인권에 관한 문제이다. 한국 기독교인권위원회는 1981년 5월 양심수인의 수는 308명이고, 그 뒤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유인물 사건, 민주학생연맹 사건, 학원사태 등 수십명이 연행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현 제5공화국 정권은 “유신 잔재 탈피”를 지향하는 듯한 의도를 비쳐 또한 주목된다. 이른바 새 시대 제5공화국 헌법의 운용에 있어서는 민주정치의 명실상부한 구현이 있어야겠다.

2. 경제 분야 : 경제 분야는 가톨릭 교회에서 레오 13세 교황의 “노동헌장”을 발표한 이래 인권과 관련하여 노동문제를 중요시하고 있다. 지난 78년 동일방직 사건, YH 사건 등 수차에 걸쳐 노동조합 지도자급에 대한 정화작업이 가해져 종래 자율 노동조합 기능은 대폭 약화되었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81년말까지 발생한 집단 노사분규는 모두 104건에 이른다. 난관에 봉착해 있는 근로자들은 기업측의 경영부진, 또는 부도급증이라는 양태로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3. 사회 분야, 제5공화국은 출범 당시에 “정의로운 민주 복지사회”, 특히 “부정부패”를 뿌리뽑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하였다. 그런데 1981년 공직자 부정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연탄값 인상 뇌물 사건, 하형사 사건, 주교사 제자 살해 사건 등 일련의 부정부패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들로서 참담한 현상을 실감케 했다. 이제 국민은 정부도 경찰도 교육제도 믿을 수 없는 허탈감과 암울에 휩싸이게 되었다.

4. 언론 분야 : 천주교 정의평화 위원회는 1977년에 “해방후 30년간 한국 언론에 가해진 법적 규제의 변천”을 조사한 바 언론자유가 일시 보장된 때는 4·19후 제2공화국 시절 뿐이었다. 특히 1980년 “언론 기본법”의 결영금지 규정에 따라 제 언론계는 통합 조정되고 주간 및 월간잡지 172종이 등록 취소 당하여 오늘날 한국의 언론 문화 풍토는 지성을 봉쇄당한 의욕과 활기가 꺾이게 되었다.

5. 늘 깨어 있으라 : 가톨릭 교회는 여러 세기를 통한 체험을 토대로 하여 세상의 현 상황이 요청하는 창의적 개혁이 성취되어 나가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한다. 이러한 중대시기에 하느님께 뽑힌 사람들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는지 과연 이 시대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농민은 많은 종류의 세금과 공과금을 과중하고 불공평하게 부담하고 있다.

농민이 부담하는 조세 공과금의 종류만 해도 20여종이 넘고, 세부담도 도시 종합소득 근로자(5인가족 기준)는 현재 연소득이 268만원이면 세금을 내지 않지만 농민은 벼농사에 부과되는 잡류농지세의 경우 소득이 아닌 수입금액이 268만원이면 144,000원, 울류의 경우 소득금액이 268만원이면 479,500원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수년동안 이러한 부당한 농민의 세부담 시정과 불공평한 농지세제의 개정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온 한국 가톨릭 농민회는 1월 30일, 농수산부장관의 불합리한 농지세제 개정 발언에 불허 다음과 같이 농민 주장을 제차 밝히고 농민도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농지세제를 정의 형평의 원칙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 현행 농지세제의 문제점

1. 기초공제액(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너무 낮다. 갑·울류 각각 도시 종합소득 근로자가 받는 공제액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해야한다.

도시 봉급자(5인가족)는 연 268만원 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각종 공제혜택을 314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민은 잡류농지세의 경우 수입금액중에서 115만원, 울류는 소득금액중에서 17만원밖에 안된다. 그러나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2. 잡류농지세는 수입금액이 아닌 생산비를 제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현 제도는 쌀농사를 지어 적자를 보아도 세금을 부과하는 엄청난 모순을 범하고 있다. 세금을 내고 사온 비료대, 농약대 등에 까지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3. 잡류 기초공제액은 현물로 정해야 한다.

4. 울류작물 소득표준율이 실제보다 엄청나게 높게 결정되고 있다. 울류농지세는 생산비를 제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5. 농지세에도 도시 종합소득 근로자가 받는 각종 공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6. 농지세 세율을 낮추고 단계를 여러 단계로 해야 하며, 과표간격도 현행 15만원에서 도시근로자 수준과 같이 늘려야 한다.

7. 울류농지세 소득금액 산출에 필요한 필요경비 조사 근거를 내부부령으로 정하도록 법(1976년 신설)으로 되어 있으나, 일선 행정당국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것 등, 정비되어야 할 세법상의 문제점은 개정되어야 한다.

1982년 1월

한국 가톨릭 농민회

### 생산사원 모집

당사는 서울 소재 수출품 분제공구(인형) 제조회사로 생산사원을 모집코자 하오니 뜻이 있는 분은 아래 장소로 연락 바랍니다.

모집인원 : 여자 ○○명  
자 격 : 18세 이상 여성이로 무경험자도 가능  
전주 연락처 : 전주 전화 ②2836회관수(시문)  
※ 기속사 전일 수용하며 야간학교 취학이 가능함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독산동 619

### 여광물산주식회사

전화 854-6881~3 이사 최영식(바로로)

종교서적·성화·성물

### 시문서원

이리시 창인동1가 235번지  
천주교 창인동교회 정문앞  
노스텔라(미숙)

### 결(축)혼

신랑 : 송영환(요한)  
신부 : 이정자(글라라)  
일시 : 1982년 2월 20일  
          낮 12시  
장소 : 원평 천주교회

ECCLESIA

□ 「평협」 82년도 사업 및 예산 확정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지난 2월 6일 평협 활성화를 위한 82년도 제1차 상임위원 및 임원 연석회의를 갖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도 사업으로 1. 방문 사도직, 2. 제 단체 활동 지원에 주력키로 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예산을 통과시켰고, 자금 조성에 각 본당 사도회가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 및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 선출 포함)

회장-양상렬(덕진 사도회장), 부회장-이홍재(노송동 사도회장)·채수현(LM 꼬미시움 단장), 고문-조성호(전 평협 회장)·천진(꾸르실로 교구 사무국 주간), 상임위원-김은홍(창인동 사도회장)·고수창(약사회장)·박광문(중앙 사도회장)·이종두(전동 사도회장)·최병운(삼례 사도회장)·김창호(남원 사도회장)·김치덕(김제 사도회장)·허순덕(복자), 감사-강신증(오룡동 사도회장)·이태영(방저거 3회 회장), 사무국장-한상갑(덕진), 사무차장-이주철(전동)·전자석(중앙), 선교부장-김영춘(중앙), 전례부장-문대현(파티마), 봉사부장-모보일(노송동), 재정부장-소병을(덕진), 교육부장-김병오(전동), 조직부장-한귀석(중앙), 부녀부장-이은자(숲정이)

□ 자신감 안겨준 「교리교사 동계 연수회」

주일학교 교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리교사 연합회(지도신부 김병환)가 주최한 동계 연수회가 지난 2월 8~10일, 11~13일 두 차례에 걸쳐 가톨릭 센터에서 열렸다.

200명에 가까운 교리교사와 수녀들은 어린이미사 성가와 소창 및 율동 강습에 적극적인 자세로서 교사들의 진정한 열성과 힘을 보여 주었다. 또한 교리 교수법과 교사들의 자세, 성서강좌 때의 한순간을 놓칠세라 귀담아듣는 진지한 모습의 연수회였다.

특별히 금년엔 서울 「가톨릭 레크레이션 연구소」에서 초청되어 온 김종의·김중환 선생의 지도 교육을 통한 현실적인 주일학교 운영 방법 제시로 보다 큰 반응과 성과를 거뒀다는 후평이다.

□ 「로사리오회」 제2차 정기총회

가톨릭 내부공무원들의 모임인 로사리오회의 제2차 정기총회가 지난 1월 31일 가톨릭 센터에서 열렸다. 이 회의는 각 시·군에 분회를 두어 회원수가 350여명에 달하는데, 총회에서 초대 회장인 송재구(요한)씨를 2대 회장에 유임시키고, 은운창(바오로)씨를 상임 부회장으로 선출했다.

그간의 성과가 좋은 결과로 경기도와 광주시에서도 곧, 같은 취지의 모임이 결성되리라는 기쁜 소식까지 들려왔다.

□ 본당 행복한 가정운동 지도자 양성

모든 가정의 성화와 행복을 위한 '행복한 가정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도자 양성 세미나가 2월 19일~20일 가톨릭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숙식비 무료제공이며, 본당 신부님의 추천으로서 각 본당에서 2명씩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행복한 가정운동' 상담실(성모병원 2층)에서 받는다. 전화 2-8092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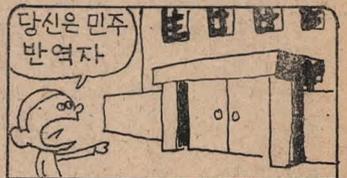
□ 상담시간이 아래와같이 변경되었다. 2월 1일부터 오전 10~12시, 오후 1시30분~5시

□ 캐나다 「한글학교」에 농악기 보내

캐나다 런던 한인 천주교회에서 운영하는 「한인 천주교 한글학교」(교장 김병운 신부)에 교구의 뜻있는 분들이 농악기(農樂器) 10점을 보내주었다는 흐뭇한 소식이 있다.

매년 국제 예술제가 그곳에서 열리는데, 이젠 구성진 가락과 악기를 선보여 한국문화의 일면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 기쁨이 크단다

요심이 (445) 김병오



교우여러분을 가까이서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양 약 · 한 약  
성 가 약 국

전화 ⑤ 5 8 3 5  
약사 권요섭(성윤)  
(전동 전영정기화물 앞)

전영정기화물	<input type="checkbox"/>	↑ 전주교	
성가약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코스요	
전동성당	<input type="checkbox"/>	팔달로	<input type="checkbox"/> 전동배차장

□ 생화·각종 화분·신부부캐  
교우분들, 자주 들려주세요

진선미 꽃집  
전주극장골목 전화⑥2628  
범띠도(떡배)·이마리아

총회 소집공고

항 조합 제9차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아 래  
일시: 1982. 2. 21, 오후 2시  
장소: 가톨릭센터 강당  
전주임원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김정규

제9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정관 3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함

- 아 래
1. 일 시: 1982년 2월 20일(토) 오후 1시30분
  2. 장 소: 천주교 전동교회
  3. 부의안건: 가. 전차 회의록 승인. 나. 1981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다. 감사보고 승인. 라. 잉여금 처분(안) 승인. 마. 198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바.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 사. 임원보선 위임의 건. 아. 의사록 서명날인인 선임의 건. 자. 기타 안건
-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장준수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공지사항**
1. 그리스도 공동체 목사회: 일시-2월 25일~28일, 17일까지 사목국으로 서류 접 수마감  
장소-가톨릭센터, 회비-20,000원
  2. 대학생 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신자 대학생, 일시-2월중 매주 <월> 오후 2시~5시,  
장소-학생회관 (전북대 앞)
  3. 사진 전시회: 조선교구설립 150주년 기념사진 당선작. 일시-3월 5일~8일, 장소-가톨릭센터
  4. 농민회 총회 및 분회대표 연수: 일시-2월 16일 오후 1시, 장소-가톨릭센터 대상-각 분회대표 및 임원
  5. 공소 지도자 훈련: 1·2·3지구 공소 대표, 22일~25일, 가톨릭센터(사목국 접수)
  6. 창립총회: 비행장애(군산) 근무하시는 교형자매 모임-2월 20일 빈혜원에서 창립총회-2지구

**(중앙)** 주임 신부 문정현  
전화 01711~3 보좌 신부 박광문  
사도 회장 박광문

- ※ 성경읽기: 야고버 1장~3장, 마르코 8장~9장
1. 구리아 월례회: 오후 2시 강당
  2. 자모회 총회: 27일 10시 30분
  3. 재의 수요일: 24일 <수> 단식과 금육, 이날 단식과 금육은 특별한 지향으로 분당에 바치세요. 작년에 받은 성지가지지를 2월 21일까지 사무실에 가져오세요
  4. 토요 특전미사 시간변경: 오후 7시미사가 6시로 변경, 어문만 특전 해당됨
  5. 예비자 불현예식: 21일 공식미사에 예비자 안내하신 분은 예비자와 같이 불현예식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드레아반만 해당)
  6. 복사단 모임: 초·중·고등학교 약간명 선착순 희망자는 나누어님과 전담바랍니다
  7. 중학생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1학년 담당-이소피아 수녀님 (2층 교리실)  
2학년 담당-박베드로 신부님 (성가대 회합실)  
3학년 담당-나제노베와 수녀님 (강당)
  8. 조선교구 설립 150주년 기념사진 응모전 당선작 전람회: 3월 5일~8일 가톨릭센터 3층
- 지난주 봉헌금: 563, 677원

2. 성우회: 공식미사 후, 학생회: 9시 학생미사 후
  3. 24일은 재의 수요일: 단식과 금육 작년에 받으신 성지가지를 사무실에 내주세요
  4. 주일학교 자모회 임원개편  
회장-은희영, 총무-조데레사, 수고하겠습니다
  5. 은인을 구함: 각 성월에 모실 석상 4개(각 10만원). 뜻있는 분 분당신부에게 문의
  6.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김길수 ②최소피아
- 지난주 봉헌금: 330, 910원

**(서학동)** 주임 신부 김병환  
전화 02276번 사도 회장 활인구

1. 반장님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반장님들 참석
  2. 할머니회 모임: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구리아 모임: 오늘 오후 2시, 단원들 참석바랍니다
  4. 올드레아 모임: 2월 19일 <금> 저녁 7시 30분
  5. 성지가지: 작년에 받으신 성지가지는 다음주일까지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6. 다음주 전례담당: 독서-①한현수 ②박장춘
- 지난주 봉헌금: 235, 660원 교무금: 98, 500원

**(숲정이)** 주임 신부 이대권  
전화 07366 사도 회장 김수걸

1. 분당 확인지도: 2월 15일 사도회임원·구역장·반장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요안나 월례회: 2월 21일 공식미사 후
  3. 성모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4. 반장님들께 드린 신자 반명부를 사무실에 내주세요
  5. 파년도 미납된 봉헌금을 2월중에 완납해 주세요
  6. 차주 전례담당: 해설-정주복  
독서-이원일·이중상, 기도-강삼현·임종래
  7. 미사안내자: 권은순·송철자·최윤희·김귀선·김숙현·임종래
- 지난주 봉헌금: 397, 130원

**(노송동)** 주임 신부 김정원  
전화 07032번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각 구역의 가정방문 일정: 아파트지역-15일 <월>, 18일 <목>, 남노송동-16일 <화>, 중노1동-23일 <화>, 24일 <수>, 중노2동-19일 <금>, 인후동-22일 <월>, 25일 <목>, 유아동-26일 <금> 매일 오전 9시부터 방문. 사도회 임원님들과 각 구역장님들의 협조바랍니다
  2. 베소라 섬서강의: 16일 <화> 저녁미사 후
  3. 예비자교리: 매주 공식미사 후
  4. 구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각 간부님들 참여바람)
  5. 주일학교: 일주일의 기도생활표-부모님들 확인바람
  6. 전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7. 성지가지 다음주까지 가져오세요
  8.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신우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281, 030원

**(전동)** 주임 신부 김병엽  
전화 사무 06208 사도 회장 박병준  
수녀 0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자모회: 공식미사 후 2. 성화회: 차주 공식미사 후
  3. 꼬미씨울: 다음주 오후 2시
  4. 구역회합: 매월 네째주 화요일, 많은 교우 참석요망
  5. 굽은이 피정: 3월 7일 오전 10시~오후 5시
  6. 대건신용조합: 제 9차 정기총회  
2월 20일 오후 1시 30분, 장소-전동 천주교회
  7. 신축기금: 예비자 일동-1만원, 익명-1만원
  8. 82년도 주일학교 졸업식 및 종업식: 14일 3시미사후
  9.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중주, 독서-①김동원 ②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이주철, 독서-①장금태 ②박도식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이승호 ②변해식
- 지난주 봉헌금: 521, 910원

**(덕진)** 주임 신부 서석기  
전화 02182번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안상열

- ※ 축하합니다: 성무에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반석회 모임: 미사후, 빠지지 말고 참석하세요
  2. 오늘 애령주일: 신영들을 기억하고 미사 봉헌합시다
  3. 예비자교리 시작: 다음주부터 많은 예비자 인도바람  
아직까지 봉헌하지 않은 분들은 꼭 봉헌하세요
  4. 보좌신부님 축하미사: 신부님의 건강과 성무일에 주님의 은총이 증만하시길...
  5. 애령회에 가입하여 선교에 앞장설시다
  6. 새로운 마음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7. 금주전례: 해설-김연선, 독서-①이남연 ②나영규  
차주: 해설-이영남, 독서-①정경실 ②박귀순
- 지난주 봉헌금: 447, 950원

**(파티마)** 주임신부 김영일  
전화 00915 사도회장 황희상

1. 오늘 저녁미사후 선교분과 위원회가 있습니다  
신교분과 전원 참석바람
  2. 2월 19일 파티마 신용조합 정기총회: 오후 2시 분당
  3. 다음주 봉사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4. 각 레지오 단원들은 4월에 있을 영세를 위해서 예비자 교리안내에 적극 협력을 바랍니다
  5. 각 레지오 브레라시디움은 레지오 연수회에 참석바람
  6. 사도회 상임위원회의에서는 사순절동안 사도회 전원 피정: 3월 13일경에 갖기로 결의되었습니다
  7. 2월 16일은 유치원 조예레미아 수녀님 영명일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200, 830원 교무금: 223, 000원

**(복자)** 주임 신부 김홍택  
전화 05238번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반회합: 15일 <월> 다가3가-교봉님(반회장)·김종근(반지도자), 16일 <화> 다가1·2가-이분님(반회장)·장영남(반지도자), 18일 <목> 중앙1반-정운주(반회장)·유기순(반지도자), 19일 <금> 중앙2반-정영자(반회장)·박상기(반지도자)